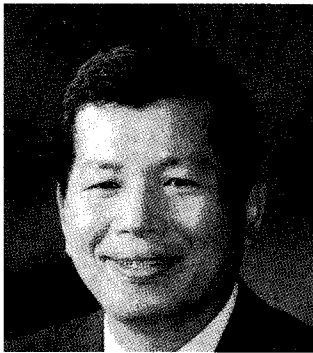


세계 최고 점착 회사 로 발돋움

우수한 인력, 튼튼한 재무 구조



◀ 이홍
한국에이버리(주)
대표이사

회사설립

한국의 라벨 및 점착제품 산업은 30여년의 역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술로 생산된 고도의 품질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점착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이버리(주)는 Avery Dennison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마케팅 능력으로 약 2년여에 걸친 시장조사 끝에 1992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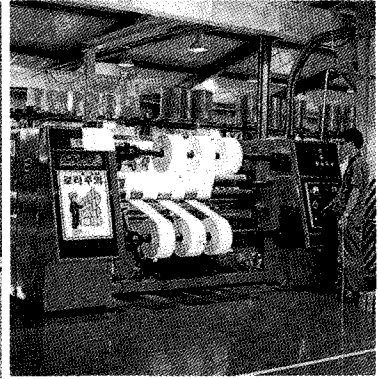
한국에이버리(주)의 모체인 Avery Dennison사는 라벨산업을 창조해낸 기업으로 66년의 역사와 매출액 40억불(2000년 기준)을 가진 세계 500대 기업중의 하나이다. 라벨 및 점착제품 산업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40여개국에서 200여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하고, 약 2만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런 Avery Dennison Corp.의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국에이버리(주)는 설립이후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시장의 요구 파악과, 최첨단의 생산 시설 및 기술로 최고 품질의 점착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24시간이내에 배송 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추가 투자를 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1994년 5월에 충주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2000년 3월에는 기존 안양소재 재단공장 및 물류센터에 이어 대구시에도 동일한 재단공장 및 물류센터를 가동해 전국에 있는 고객에게 24시간이내의 배송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2001년 5월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점착 제품회사가 되기 위해 기술개발 센터를 충주 공장 내에 설립하여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은 물론,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선 및 라벨 산업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산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실감할 때조차도 한국에이버리(주)는 상승곡선



▲ 한국에이버리(주) 공장 내·외 전경

을 타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한국에이버리(주)가 이렇듯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95명의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 홍 사장의 경영방침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홍 사장은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100% 배송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고 말했다.

또한 “매월 한번씩 품질 지수 및 고객서비스 지수를 통계 처리하여, 내부 공시는 물론 전 세계의 200여 사업장과 공유함으로써 국내의 타 경쟁사들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우위 및 전 세계의 다른 에이버리 사업장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이버리(주)의 품질과 고객서비스를 전 세계 에이버리 사업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한국에이버리(주)는 2000

년과 2001년에 세계 최고의 사업장상을 받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고객 만족은 직원들의 만족으로부터’ 라는 신념아래,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실력을 갖춘 전문 사원들을 육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인사정책과 인사고과제도를 통해 책임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회사측의 배려이다.

현재 한국에이버리(주)는 6시그마 운동을 통한 효율향상 및 비용절감을 강화하고 있고, 신제품 또는 응용 제품의 개발을 통해 한국 포장 및 라벨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한국에이버리(주)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3~4년 전 까지만 해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객 및 일반 소비자들의 오해가 심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9년여 동안 품질로서 대응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홍 사장은 “일부 껌질만 다국적인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화 및 무역 개척초기에 만들어 놓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들이 국익 착

취, 또는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회사라는 표현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매도하였고, 한국에이버리(주)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라벨 및 점착제품 사업분야에서는 유일한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관련 업계 및 고객으로부터 상당기간 오해를 받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이버리(주)는 대고객 직접홍보 및 각종 전시회 참여, 국제 전시회에 고객 동반을 통한 간접 홍보 등을 시행해왔으며, 특히 수익성에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은 100% 이행하는 등, 철저한 한국화 전략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토착화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에이버리(주)의 자랑으로는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업계 최고의 전문 직원들이 첫째로 꼽힌다. 물론 1~2년 만에 육성된 인력들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지만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인재라는 찬사를 듣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로써 한국에이버리(주)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국FDA 및 독일BGVV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용성 점착제 라벨 원단을 국내에 제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및 생활 용품 등 우리의 건강과 생활 수준 향상에 필요한 각종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되는 라벨에는 한국에이버리(주)의 라벨원단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전세계 40여 개국에 뻗어있는 관련 회사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자랑거리다. 이를



▲ 한국에이버리(주)가 새롭게 선보인 고품질인쇄를 위한 점착라벨

통해 항상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전략수립 및 제반 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갖는 규모의 경제 또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다.

신제품

한국에이버리(주)에서는 고품질 인쇄를 위한 점착라벨(스티커 라벨)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출시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높은 판매 가격으로 사용에 제한이 되어 온 기존의 프라이맥스 및 파스클리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제품이다. 제품명은 무광 백색 제품의 경우, 프라이맥스 300이며, 무광 반투명의 제품은 파

스클리어 300으로 명명되어졌다. 또한 내구성,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급의 탑 코팅 신제품으로 PP 탑 및 PE 탑 제품이 함께 출시되었다. PP 탑 및 PE 탑 제품은 공히 유광의 투명 및 백색 필름으로 각종 가정용 세제류 등 생활용품, 각종 식품, 유가공품 및 의약품 용기 등의 라벨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이버리(주)가 새롭게 선보인 또 하나의 제품은 최신기술의 특수 화학 표면처리로 어떠한 종류의 잉크를 사용하더라도 고품질의 선명한 인쇄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잉크 밀착성이 우수한 탑 코팅(TC1000)으로 제조되어, 긁힘이나 마찰, 열, 화학물질 등에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내구성,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발휘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최신의 표면처리 신기술로 평압식, 레터프레스, 플렉소, 그라비아, 스크린 및 오프셋 등 인쇄방식 선택의 폭이 넓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폐기하실 때에도 별도로 분리수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향후 발전 계획

이 흥 사장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지만, 점착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고기능, 고부가,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되는 한 라벨 및 점착제품을 활용한 포장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은

물론,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응용 제품들의 개발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한국에이버리(주)는 기존의 기술개발센터를 더욱 보강하여, 라벨 및 점착제품의 기술 개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마케팅 및 영업능력의 향상과 제조 기술의 보완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점착제품 회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내부 유보 자금 등 투자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과 함께 고품질, 고부가 제품을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도록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포장 기술 및 관련 기술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는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Avery Dennison Corp.이 최근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세계 3위의 점착제품 회사인 Jacstadt(독일계 다국적 기업)의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에이버리(주)의 제품 구성이나 운영 범위도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만족의 정신아래 잘 훈련된 우수한 인력에 튼튼한 재무 구조, 전세계를 잇는 기술 및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투명한 경영이 조화된 한국에이버리(주)를 통해 한국의 라벨 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라벨 산업이 무궁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